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1월 18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도농업기술원 올해 연구개발 사업에 43억 투입-6면	친환경연구과	뉴제주일보
○	올해 농업 기술 개발 43억 투자-2면	친환경연구과	제민일보
○	농업현장 실용기술 개발 도농기원 올해 43억 투입-6면	친환경연구과	한라일보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4억원 투입-5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신문
○	도농기원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4억 투입-3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뉴제주일보
○	제주 ‘망고’, 정예 소득작목 육성 박차-6면	-	뉴제주일보
○	조기정식·조기출하로 평년 대비 과잉 공급 월동무 정부 구매-6면	-	제주매일
○	“만감류 출하 품질검사 통과 쉽지 않네” -5면	-	제주일보
○	감귤산업 현실 세계를 포착할 수 있는 힘 키워야-15면	-	제민일보
○	월동무 수확에 바쁜 농가-5면	-	뉴제주일보
○	양배추 수확에 ‘구슬땀’ -1면	-	제주일보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18일)

○ 제주도농업기술원 올해 연구개발 사업에 43억 투입-6면

제주도농업기술원 올해 연구개발 사업에 43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올해 연구개발 사업에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미래농업 대응을 위한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친화 농업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 여건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사업비 34억3350만원을 투입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종자주권 확립,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해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사업, 이상고온 대응 안전생산 시범사업, 극조생 하우스감귤 고온기 품질 향상 및 조기출하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1.18.

뉴제주일보 6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민일보: 2024년 1월 18일)

○ 올해 농업 기술 개발 43억 투자-2면

올해 농업 기술 개발 43억 투자

스마트농업·우수품종 실용화 연구개발 매진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농업 여건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농업현장 실용기술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사업에 43억원을 투자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농업 대응을 위한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은 데이터 기반 작물 최적 생육모델 개발, 병해충 자동진단 시스템 구축,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제빛나' 실증 등을 추진한다.

탄소중립·환경친화 관련 농업기

술로는 비료 사용 저감을 위해 토양 양분에 따른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 설정, 제주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비료·농약 절감 기술 개발, 제주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차·제조 기술과 토양·작물별 바이오차 투입 효과 구명 등을 추진한다.

새로 개발한 우수 품종 보급사업도 확대한다.

새롭게 개발된 감귤 '가을향' 등 3품종과 브로콜리 '삼다그린' 등 2품종은 종묘회사를 통해 56ha분을 농가 보급하고, 감자·나물콩·마늘 등의 우량종자는 60t을 공급해 농업인 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1.18. 제민일보 2자

(한라일보: 2024년 1월 18일)

○ 농업현장 실용기술 개발 도농기원 올해 43억 투입-6면

농업현장 실용기술 개발 도농기원 올해 43억 투입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여건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올해 '농업현장 실용기술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사업에 4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농업에 대응하고자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에 주력한다. 데이터 기반 작물 최적 생육모델 개발, 병해충 자동진단 시스템 구축,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제빛나' 실증 등에 나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환경친화 농업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비료 사용 저감을 위해 토양 양분에 따른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 설정, 제주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비료·농약 절감 기술 개발, 제주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차 제조기술과 토양·작물별 바이오차 투입효과 구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새롭게 개발한 우수 품종 보급사업을 통해 농가 공급을 확대한다. 새로 개발된 감귤 '가을향' 등 3품종과 브로콜리 '삼다그린' 등 2품종은 종묘회사를 통해 56ha 분을 농가 보급하고, 감자·나물콩·마늘 등의 우량종자는 60t을 공급해 농업인 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한라일보 6

(제주신문: 2024년 1월 18일)

○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4억원 투입-5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4억원 투입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27개 사업에 34억3350만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전생산 시범, 극조생 하우스 감귤 고온기 품질향상 및 조기출하 시범, 시설채소 가변형 입식베드 스마트팜 재배시범, 마늘·양파 농작업 기계화 보급 시범 등이 있다.

사업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시범요인을 충실히 이행하며, 필요시 해당 포장을 교육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단체)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센터별 사업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또는 각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8.

허영형 기자 hyh8033@jeju. 제주신문 5

(한라일보: 2024년 1월 18일)

○ 도농기원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4억 투입-3면

도농기원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4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27개 사업 120개소에 34억3350만 원은 미래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종자주권 확립, 농업·농촌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전생산 시범, 극조생 하우스감귤 고온기 품질향상 및 조기출하 시범, 시설채소 가변형 입식베드 스마트팜 재배시범, 마늘·양파 농작업 기계화 보급 시범 등이 있다.

한라일보 3면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18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

- ▲만감류
△최대한 자연온도 유지, 야간온도 0도 이하 예보 시 측창 닫기-열풍기가 있는 경우 최저온도 2도 내외로 설정
△정기적인 품질조사 후 관수량 조절
- ▲노지감귤
△수확 완료 과원은 기온 10도 이상 따뜻한 날 엽면시비-요소 0.2~0.3% 액 7~10일 간격으로 2~3회
- ▲양채류
△도둑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및 노균병 방제
- ▲당근
△다습한 날 아침이슬 발생 시 검은

- 잎마름병, 점무늬병 발생 주의
- ▲월동무
△월동 후 수확 예정인 포장은 습해 관리에 유의
- ▲구마늘
△1~2월 흑색썩음균핵병 주 발병 시기로 예찰 방제 필요
-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18.

뉴제주일보 13면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18일)

○ 제주 ‘망고’, 정예 소득작목 육성 박차-6면

제주 ‘망고’, 정예 소득작목 육성 박차

한경농협, 망고공선회 발대...“고품질 생산관리로 농가 소득 증대 노력”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함께 새로운 소득 작물로 ‘망고’가 주목받고 있다. 한경농협(조합장 김군진)은 지난 15일 한경농협 본점에서 김승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 한경면·추자면)과 망고 재배농가, 한경농협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망고공선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경농협은 지난해 제주시와 함께 ‘2023년도 정예 소득 작목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 29억4600만원을 투입, 3만2045㎡ 규모로 망고 작목단지를 조성했다.

한경농협은 망고를 지역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 처리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은 이날 망고공선회 발대식에 참석해 “망고공선회가 발족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심해 잘 이겨냈다”며 “고품질 생산관리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17일 제주도 농업통계에 따르면 도내 망고 생산 면적은 2015년 28ha에서 2021년 40ha로 42.9% 늘었다.

반면 감귤 생산량은 같은 기간 2만533ha에서 1만9978ha에 머물며 30여 년 만에 감귤 재배 면적이 2만ha를 밑돌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지난 15일 한경농협 본점에서 열린 망고공선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경농협 제공〉

(제주매일: 2024년 1월 18일)

○ 조기정식·조기출하로 평년 대비 과잉공급 월동무 정부 구매-6면

조기정식·조기출하로 평년 대비 과잉공급 월동무 정부 구매

aT, 6000t 규모...수급불가 안정 기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17일 6000t 규모의 제주 겨울무 구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출하 중인 겨울무는 조기정식과 조기출하로 1월 현재 평년보다 다소 많은 양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월 출하량은 그만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과 공급에 따라 도매가격도 kg당 900원 수준으로 평년보다 20% 이상 하락해 제주지역 생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18일 aT는 조기정식과 조기출하로 1월 현재 평년보다 다소 많은 양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월 출하량은 그만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과 공급에 따라 도매가격도 kg당 900원 수준으로 평년보다 20% 이상 하락해 제주지역 생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제주도 구좌읍의 겨울무 정부구매 수확 포전 모습이다.

부 떨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축한 겨울무는 저온저장고에 보관 후 한파로 인한 공급 불안이나 설 성수품 물가안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민족의 최대 명절

설을 앞둔 상황에서 수급 불안에 대비해 겨울무를 구매 중”이라며 “성출하기를 맞이한 겨울무를 확보해 겨울철과 설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철 기자

(제주일보: 2024년 1월 18일)

○ “만감류 출하 품질검사 통과 쉽지 않네” -5면

“만감류 출하 품질검사 통과 쉽지않네”

서귀포시 453농가·523건 검사 중 222농가·256건뿐...합격률 49%

미숙과 출하를 방지하고 고품질의 만감류를 출하하기 위한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에 참여하는 농가가 크게 늘었지만 합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시행해 온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지난 15일을 기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검사에 참여한 만감류 재배 농가는 453농가, 검사 건수는 523건으로 전년 113농가·113건과 비교하면 참여 농가는 4배, 검사 건수는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귀포시가 이번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행에 맞춰 3개 팀·12명 1.18. 성된 검사반을 편성해 제주일보 5

참여 농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품질검사에 나선 것은 물론, 철저한 단속을 통해 선과 장들이 사전검사에 참여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통과한 사례는 222농가·256건(49%)에 그치면서 합격률이 50%를 넘지 못했다.

품종별로 씨니트가 합격률 68%로 가장 높았고, 한라봉이 55%로 그 뒤를 이었다. 천혜향의 경우 81개 농가가 100건을 신청했는데 14개 농가, 19건만 검사를 통과하면서 합격률이 19%에 불과했다.

이는 만감류의 경우 1월 말 이후가 적정 수확기지만 최근 만감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완전히 숙성되지 않은 열매를 조기 수확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귀포시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와 함께 검사 미이행 만감류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 결과 35건이 적발돼 출하 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또 출하 중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출하를 시도하다 적발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유지하고 감귤 이미지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제민일보: 2024년 1월 18일)

○ 감귤산업 현실 세계를 포착할 수 있는 힘 키워야-15면

감귤산업 현실 세계를 포착할 수 있는 힘 키워야

제민포럼



김 용 호
비상임 논설위원

■ 철학으로 질적 향상을

감귤산업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철학하는 일이란 남이 이미 읽어낸 감귤 세계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을 줄 아는 힘을 갖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발전시켜야 한다.

1.18.
제민일보 15

새해 들어 이상현상으로 올해 기후가 지난해에 비해 무척 더운 것으로 예상돼 생활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자못 궁금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이상낙과 및 열과 현상이 발생해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잃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극조생 품종의 과육숙현상을 포착하지 못한 농업인 및 유통업자가 곤욕을 치렀다.

다행히 폭우로 인한 낙엽과수 생산량 감소에 하우스감귤은 반사이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계절에 따른 이상기후가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최대 변수로 부상되고 있음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낙과와 열과 현상으로 감귤 수확량 감소 및 타 과수의 생산량 감소로 감귤 가격폭등현상이 발생해 한 때나마 농업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 요인 이외에도 가을 기온으로 일조량이 증가해 광합성 작용이 왕성하게 이뤄져 당도가 무려 타이백 밀칭 재배한 감귤에 견줄만큼 품질이 향상됐다는 점은 간과되는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있다.

도소매업 종사자들은 당도가 매우 높다고 이야기 하는데 정작 제주에서는 가을 일조량 증가에 대한 고

마음을 잊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한라산에는 폭설로 교통이 통제됐지만 해안가에는 눈이 조금 쌓일 정도였다. 이후 점차 일주도로변에서는 눈이 비로 변하고 기온도 따듯해 온주밀감의 수확철동에 이상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약간 정도의 눈이 올 정도로 추위야 수확저장이 되고 판로에 이상이 없을 터인데 기온이 높으면 부패가 발생하고 산도가 낮아져 감귤이 변질된다.

주변국 조생온주밀감 출하종로기를 보면 중국은 10월 말, 일본은 11월말인데도 제주에는 이에 대한 흐름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새해 들어 잔여량이 적음에도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보면 주변국 사례에 비춰 대책을 수립할 때도 됐다.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만감류 가격에 대한 관심도 많다. 한라봉 평균 경락가는 지난해에 비해 22.6%, 레드향은 32.9%, 천혜향은 35.3% 상승해 설 명절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 가격이 매해 유지된다면 감귤산업에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감귤의 최고가가 경선된다면 앞으로 ‘감귤 가격을 양(量)의

조절이 아니라 질(質)적 향상을 통해 조절·결정하는 승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자체 지식과 기술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못하고 수입된 지식과 생각이 통용되면 그게 우리의 지식이고 기술인 것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제주를 제외하고 주변에서는 자연스레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시대로 넘어갔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수입하는 감귤산업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생각이나 사유의 결과를 수입해서 살았던 습관을 이겨내고 스스로 사유 생산자가 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스스로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결과를 속지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채우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파하고 대신해주는 삶밖에 살 수 없다.

이제 감귤산업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철학하는 일이란 남이 이미 읽어낸 감귤 세계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을 줄 아는 힘을 갖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발전시켜야 한다.

<전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18일)

○ 월동무 수확에 바쁜 농가-5면



1.18. 뉴제주일보 5
월동무 수확에 바쁜 농가 17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한 무 농가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하며 바쁜 일손을 놀리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제주일보: 2024년 1월 18일)

○ 양배추 수확에 ‘구슬땀’ -1면



1.18. 제주일보 1
양배추 수확에 ‘구슬땀’ 17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소재 한 밭에서 농민들이 양배추를 수확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